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개혁

윤순동 <목포해양대 해양 및 조선공학부 교수>

우리시대는 국가간 무역장벽이 걷혀서 세계가 한 경제권이 되는 세계화(국제화),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혁신등으로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급신장하는 정보화가 주류를 이루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변혁의 급류속에 깊숙히 빠져들었다. 타국의 경제가 언제라도 우리의 경제상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지구상의 정보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정보사회가 형성되어 우리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는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한다는 진리 앞에서 각국은 무한, 무차별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 명운을 걸고서 정보화, 세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서 대학은 정보지식기반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대학교육개혁을 가속시키고 있는 중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이제까지와 다른 구체적인 요건변화를 들면 첫째,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창조성과 다양성을 요구한다.

창조성과 다양성은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일생동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새로운 창조와 시대적응능력의 배양으로부터 가능하다. 이 때에 교육의 방향은 공급자(교수)중심이 아닌 소비자(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대학은 새로운 사회에 맞는 신지식과 신기술을 개척하여 미래를 열어갈 학생,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인을 교육시킬 책무를지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은 오늘의 교육내용이 직업연계성

이 부족하고, 교육받은 인력의 질이 부실하며, 사회인(비정규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신축성 부족, 교육의 질이 담보상태라는 비판에 대하여 우리들은 대학의 위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가상)대학이라는 신개념의 고등교육기관이 속속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어서 기존대학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실시 및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대학교육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개혁의 동향은 이러한 현실인식으로부터 정부가 해당대학에 탄력적이고 차동적인 방법의 재정지원으로 대학개혁을 유도하고, 고등교육기회를 대중화하여 고등교육 진학율을 확대하고, 학령을 벗어난 성인을 비정규학생으로 유치하며, 외국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고등교육체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 학부제의 특성

오늘날 대학교육의 이상은 다기능적 인간과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폭넓은 전공과 넓은 시야의 인격이 요구되어 앞선 대학들이 학부제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경향을 보이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다.

학부제는 기존의 학과 중심체제와는 달리 두 개

특집 | 교육개혁과 기업이 바라는 새로운 조선해양공학도상

이상의 학과가 학문적 연계와 특성을 살려 재조합(유사학과의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체제로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학문영역의 통합을 통하여 교과과정의 중복편성 및 학생의 교과목선택의 제약과 취업제한을 해소하고, 학문간 연구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규모는 단일 학과보다 크고, 인적구성이나 교과과정의 설정에서는 단일학과와 단과대학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특성과 유형은 다양하며 개별대학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범위와 규모를 설정하게 된다.

학부제의 기본전제는 학부과정에서의 다학문적 접근과 대학원에서의 세부전공별 심화과정의 운영에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교육을 내실화할 수 없는 대학, 학부과정에 치중하는 학사과정형 대학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부제의 주요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폭넓은 전공교육기회

(전공선택과목의 확대)

해당학과의 전공과목만 이수하던 학생들이 유사학과나 인접학문계열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어 폭넓은 교과과정의 운영이 가능하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따라서 폭넓은 전공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문영역간의 폐쇄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폭넓은 교육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계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시에는 학부과정에서 계열화된 큰 학문분야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① 복수전공(다전공)가능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는 총이수학점의 1/4 -1/6 에 해당하는 전공과목 24 - 32학점을 이수하면 전공하나를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부내의 다전공, 복수전공을 권장하고 있고, 교과과정을 이러한 다전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유사전공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예 학문영역이 다른 경영+이공, 인문사회+이공기초과학+인문사회 등의 조합이 가능하므로 편협한 전공영역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2) 교육 및 연구의 내실화

대단위 강의로부터 소단위 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강규모로 교과과정의 운영이 가능하고, 이에 맞는 팀티칭,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학과 중심 제도하에서의 학과간 배타성에서 기인된 연구시설, 교육시설의 중복설치, 비효율적인 운영을 피하여 이러한 시설을 공동 활용하므로서,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서 재정절약과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통합된 학부차원에서 교과목을 설강하므로 교수들의 강의 부담이 줄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인접학문간의 공동연구, 연구그룹 등을 형성하여 다학문적 대단위 연구가 가능하다.

(3)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학부제의 유형으로서 1학년은 무전공 학부공통 과정과 2, 3, 4학년은 전공심화과정으로서 1+3형, 1, 2학년은 무전공 학부공통과정과 3, 4학년은 전공심화과정인 2+2형, 3, 4, 5학년을 전공심화과정으로하는 2+3형, 1, 2학년은 교양위주의 선택과정과 3학년은 학부공통과정 및 4학년은 전공심화과정으로 하는 2+1+1형등으로 다양하다. 각대학들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다양한 사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화, 개성이 있는 특성화를 이루어서 꼭 필요한 대학, 경쟁력있는 대학으로서의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2. 우리의 학부제 현황

많은 대학들의 교과과정을 일견하면 선박설계가 최종목표인 것처럼 보이며, 학생들도 조선해양공학을 협의로 해석하여 조립조선소의 설계부를 상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배출되는 졸업생들에 비하여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선해양공학을 보다 광의(조선, 기계, 건설, 해양 등)로 해석하여 넓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성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학부제는 이때에 필요한 교육제도로서 다전공이 가능한 교과과정이 제공된다.

우리의 해양 및 조선공학부는 3개의 전공과정인 해양 및 조선공학, 해양토목 및 항만공학, 해양환경공학전공을 가진 학부로서, 학부제의 유형은 1+3형으로 1학년은 무전공으로서 교양교과와 학부공통교과과정이다. 1학년말에 전공지원신청을 받아서 2학년부터 심화전공과정인 3개전공으로 나누어져서 3, 4학년까지 계속된다. 전공심화과정의 교과목으로는 학부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성된다.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전공 이수학점(35학점 정도)을 이수하면 전공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타전공 교과목의 선택은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권장하는 방향으로

학사지도를 한다.

창조성과 다양성의 계발을 위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욕구는 수시, 정시적으로 수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 또는 적극적인 학사지도를 통하여 진로를 제시한다.

관련산업분야에 필요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신기술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승선실습을 통한 선박과 해양의 특성을 익히고, 조선소 현장과 연구소의 연구시설들을 견학, 실습한다. 또한 조선소와 현장의 실무책임자들을 시간강사(겸임교수)로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 정보사회와 함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CAD, 전산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다양한 사례중에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해당대학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에서의 최적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며, 자신의 경험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일종의 개척(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윤순동



- 1949년 8월 6일생
- 1988년 공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 1979년 이후 목포해양대학교 해양 및 조선공학부
- 관심 분야 : 선박운용, 선박조정